

손으로 엮어 만든 자연...옛 바구니에 담긴 생활문화

새로운 책

국립민속박물관 '엮고 담다 : 바구니를 통해 본 한국의 생활문화' 바구니 역사와 의미변화, 제작과정, 쓰임새 등 총체적 관점 조망

바구니는 짚, 풀, 나무 등을 엮어 물건을 저장하고 운반하기 위해 만든 전통 그릇이다. 특수한 설비가 없어도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식물과 엮는 기술만 있다면 누구든 만들 수 있다. 일단 재료를 선택하고 나면 제작자의 의도에 따른 형태와 크기의 바구니가 만들어진다. 바구니에는 기후, 지리적 환경과 사람들의 생활, 관습이 반영된다. 인간을 중심으로 한 자연-인간-문화의 상호작용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다.

국립민속박물관은 한국 대표 생활용구였던 바구니를 중심으로 우리의 생활문화를 살펴보는 '엮고 담다: 바구니를 통해 본 한국의 생활문화'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는 바구니의 역사와 의미변화, 제작과정, 쓰임새까지 바구니를 둘러싼 문화적 맥락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해 쓰임별로 바구니를 분류해 설명하고 있다.

벼짚, 땃짚, 대나무, 버들, 찌리 등 대표적인 바구니 재료 채취에서부터 완성까지, 기존 자료에서 단편적으로 기록해온 바구니 제작의 전 과정을 한 권에 수록했다.

풀과 나무로 엮은 바구니의 쇠되는 단순히 생활용구의 소멸이 아닌 식물에 관한 민속지식, 제작기술, 제작도구, 바구니 분류체계 등 바구니를 둘러싼 모든 전통지식의 소멸을 의미한다.



광주리 제작 과정.

<국립민속박물관 제공>

더욱이 힘든 작업을 배우려는 사람이 없어 바구니의 전승 상황은 불투명하다. 이렇듯 바구니는 하루 빨리 조사되고 기록돼야 할 우리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다.

과거 필수 살림살이로 여겨졌던 바구니는 현재 민속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장식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근현대를 거치며 변화를 거듭해온 바구니의 의미는 상품화와 공예품화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재료대가 거의 들지 않고 노동집약적 생산이 가능했기에 바구니는 산업기반이 부족하던 시기 부업으로서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급부상했다. 가내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 바구니는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형태로 제작돼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한편 산업화와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화학소재 바구니가 보급되는데, 기존의 자연소재 바구니는 값이 싸고 관리가 용이한 플라스틱 바구니로 대체되고, 수요를 잃은 바구니는 향토의 풍취가 느껴지는 공예품으로 인식되기에 이른다.

더욱이 값싼 수입산 바구니가 유입되면서 비교적 고가의 국내산 바구니는 실생활에서 이용하기에는 부담스럽기에 실내를 장식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물건을 저장하고 담는 바구니의 용도는 선사 시대부터 지금까지 같지만 문화적 의미는 상이하다. 바구니에 새로운 가치가 부여되고 그 의미가 변해가는 과정은 현재의 바구니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바구니는 가볍고 견고하다. 또한 주변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들기 때문에 파손되어도 교체가 용이하다.

이런 특성으로 오랜 세월 동안 생활 전반에서 한국인이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대가 백년이 넘는 유물은 드물다.

다만 문헌에서 국가 의례나 민간에서 사용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으며,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사기'의 바구니 제조 관청인 '양전(楊典)'에 대한 기록이다.

한편, 국립민속박물관은 약 850점의 풀과 나무로 엮은 바구니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최명진 기자



▲모야하는 마음=김혜리 저자
영화 글쓰기의 전범, 김혜리 작가가 5년 만의 신작 '모야하는 마음'을 펴냈다. 이 책은 벨라 터르의 '토리노의 딸' 같은 예술영화에서 '어벤져스' 시리즈 같은 블록버스터까지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망라하지만, 작품을 보는 그의 방식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한 편의 영화가 왜 좋은지, 어떻게 좋은지를 궁리하는 과정에서 영화의 서사와 형식 모두를 조명한다는 점이다. 영화는 캐릭터 간 갈등과 사건 등 필연적으로 서사적 요소를 지니는 동시에 이미지와 사운드, 편집 등 서사를 지탱하는 영화만의 형식을 지닌다. 김혜리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어떻게 조화를 이뤄 영화라는 마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 비밀을 들춰내고자 한다.

/마음산책·1만8천원



▲만약에 한국사=구원희 저자
만약에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다면? 만약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지 않았다면?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명량 대첩에서 패배했다면? '만약에'란 돋보기로 재해석한 우리 역사 '만약에 한국사'가 출간됐다. 이 책은 수천 년 동안 수도 없이 갈림길에 서온 우리의 역사적 순간에 '만약에'라는 가정을 두고 한국사의 결정적인 사건과 장면을 재해석한 책이다. 22개의 역사적 사건들을 가정하면서 결정적 갈림길에서 다른 선택을 했다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하는 의문과 시대적 배경을 재미난 이야기로 설명해준다.

/이상출판·1만2천800원



▲나, 프랜 리보위츠=프랜 리보위츠 지음, 유아름 옮김
도시의 삶에, 관계에, 눈치에 지친 고독한 독자들을 위한 책이 나왔다. 남녀노소 불문 세계인의 추앙을 한몸에 받은 여러 도시로 도크소 돌풍을 몰고 다니는, 이 시대 최고로 웃긴 풍자객 프랜 리보위츠의 단행본 '나, 프랜 리보위츠'다. 세상에 날 때부터, 짐박을 나서는 순간부터, 만사가 요리조리 다 보여 절로 나오는 '불평불만'과 오만상 찌푸리게 하는 '언짱음'을 뽀시기게 장차한 프랜 리보위츠. 그에게는 '일상생활 자체가 도전'인 만큼 만인의 도시 생활과 일상의 문화가 자기 재담의 소스다. 비판이든 찬탄이든 허를 찌르는 그의 농담에는 불편한 진실이 스며 있다.

/문학동네·1만8천원



▲초등학생이 좋아하는 동화책 200=이시내 저자
이 책은 수천 권의 동화책 중에서 초등학생이 좋아하는 동화책을 주제별로 엄선해 200여 권을 소개해 주는 책이다. 저자 이시내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나눈 현직 교사이자, 교사 연수와 대중강연 등을 통해 책을 소개하는 그림책·동화책 전문가다. 동화책을 주제별로 가족, 친구, 세상, 장르, 시리즈, 그래픽노블로 나눠 소개한다.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막막한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책소개 책이자 부모와 교사가 곁에 놔두고 필요할 때마다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동화책 안내서다.

/북하우스·1만8천500원

서른 해의 빛나는 시간... '우리 같이해요'



전남여류문학회 연간집 제30호 출간

전남여류문학회 연간집 제30호 '우리 같이해요'(한림)가 출간됐다. 이번 호는 전남여류문학회가 창간호를 출간한 이후 30번째로 만들어진 연간집이다. 회원들의 시, 소설, 동시, 수필, 동화 등 작품들을 비롯해 그동안의 발자취와 활동 내용, 제29회 어린이 효행글짓기대회 수상작품 등이 부록으로 실렸다. 강금이·강진순·김가혜·김경숙·류순자·박성애·박춘임·윤기옥·이순자·이순희·임춘임·조신희·조수자·차복순 작가의 시 작품 65편과 고은

자·김능자·민금순·정해진 작가의 동시 20편, 김미·김은순·나순옥·박애금·배성희·이매훈·차경희·최해자 작가의 수필 작품 8편, 정소영·정영숙 작가의 동화 2편, 김용매·노성애·심경숙 작가의 소설 3편 등 100여편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여성 특집으로는 시와 수필, 동시를 쓰는 최해자 작가를 조명했다. 최 작가의 작품 평설은 민금순 전남여류문학회 부회장이 맡았다. 최해자 작가는 1945년 일본 홋카이도에서 태어나 아버지의 고향인 장성에서 성장했다. 2013

년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했으며, 2007년 계간 '문학춘추' 수필 부문 신인상으로 등단했다. 수필에 이어 동시 창작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동시집도 출간했다. 저서로 수필집 '장미꽃이 피는 집', '풀꽃 반지', 동시집 '하늘 도화지'를 펴냈으며, 자서전 '오래된 여자'를 출간했다. 현재 한국문인협회, 국제펜광주지 역위원회, 광주문인협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정해진 전남여류문학회장은 "서른 해를 맞이한 연간집은 회원들 개개인에게 귀중하고 빛나는 시간이자 자기만의 문학영역을 다지게 한 값진 선물이었다"며 "연간집이 사랑과 낭만, 인생의 진실을 찾는 지혜로움을 더해 문학의 역사로 남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